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과 패션

박 일 호

대전시립미술관장, 충남대 교수

모더니즘 미술: 20세기 추상미술

1. 사회적 배경- 과학기술의 발달 사회의 전문화 분업화 세분화라는 상황
 사상적 배경 - 18세기부터 시작된 계몽주의:
 - 예술의 전문화 자율성의 추구라는 명제 아래서 20세기 추상미술이 등장

2. 추상미술의 조형원리
 - 1) 미술과 일상적인 삶의 경험을 구분짓고, 미술작품의 구성요소들간의 형식적 관계만을 통해 미술만이 제공하는 고유한 경험을 제공.
 - 그를 통해 미술의 자율성, 순수성의 추구
 - cf. 재현미술 : 그 의미와 가치가 작품에 담긴 일상적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연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세계에 의존적. 이에 비해 추상미술은 미술작품은 그 자체로 자기 충족적이고, 독립적인 세계이며, 작품의 의미나 가치 또한 작품 그 자체에 의해 제공된다는 생각의 구현.
 - 2) 이러한 생각이 미술 각 장르들에도 그대로 적용
 - 회화 조각 건축 등의 각 장르들을 구분짓고, 각 장르들만의 고유한 경험의 제공을 목표, 이를 위해 각 장르들에 고유한 매체들에 주목하고 그것들간의 형식적 관계에 의한 미적 경험의 추구.
 - ex) 추상회화 : 회화만의 고유한 경험의 제공을 목표, 가장 회화적인 것, 조각과도 공유할 수 없는 것의 추구 - 평면화 경향, 색채의 효과. 조각에 있어서도 조각에 사용되는 매체들간의 형식적 관계의 추구를 통해 미적 경험을 제공.

3. 전개
 - 개개의 작가들이 형식실험을 통한 새로움을 아방가르드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고, 그것은 미술사 속에서 개개 미술가들의 독창성(originality)을 바탕으로 한 새로움이고 미술양식의 진보라는 이름으로 수용됨.

ex) 그 역사는 20세기 초 큐비즘을 시작으로 하여 1960년대 조각을 중심으로 한 미니멀 아트, '70년대의 컨셉츄얼 아트로 이르면서 극단화된 추상의 경향을 보이게 됨.

cf. 미니멀 아트 - 사물성(대상성), 연극성

컨셉츄얼 아트 - 예술가가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보여줄 것인가 보다는 예술가가 예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고하는 그 자체가 더 본질적. 예술행위는 예술적 주장을 형상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기능 의미 효용 등을 포함하는 예술의 개념내에서 사고하는 것.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1. 배경

1) 과학문명의 발달이 환경오염이나 자연의 파괴라는 폐해를 낳았고, 2차세계 대전의 치르면서 인간에 의해 발명된 문명의 이기, 혹은 무기에 의해 인간이 살해되는 인류의 비극적 상황을 목격

- 과학을 이룬 인간의 이성이 과연 믿을만한가? 합리적인 사고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싹 트고, 인간이성의 보편성 추구능력에 대한 불신.

ex) 일관성있는 줄거리의 해체, 랩음악, 왕가위의 영화등

2) 모든 것들이 기호화, 약호화되어 제시된 대중매체 사회적 특성 : 모든 기호의 의미가 그것이 지시하는 지시대상이라는 실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기호가 사용되는 맥락에 의해 의미가 제공된다는 상대주의적 입장

3) 과학문명의 발달을 주도해온 서구편향적 입장이나 문화관으로 부터의 탈피, 또한 여지껏 소수의 목소리로 여겨지고 무시되어져 왔던 분야들에 대한 주목.

ex) 민족주의, 원시주의, 페미니즘등.

2. 포스트-모더니즘 미술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미니멀 컨셉츄얼 아트의 극단화된 추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 (건축은 '60년대로 잡고 있음)

1) 문체의식 : 추상미술은 과연 계몽주의의 기획 - 인간 삶의 총체적 진보에 이바지하였는가? : 예술가들만의 형식유희 쾌락추구로 그쳐버렸고, 그러한 미술은 대중에 대해서는 공허함만을 안겨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예술이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 다시 예술과 삶의 결합, (알레고리적) 재현개념의 복구

- 구체적 이미지들, 줄거리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추상미술 이전의 재현미술과는 달리 그 이미지 자체가 갖는 보편적이고 고정적인 의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른 의미를 제공.

2) 포스트-모더니즘의 조형원리: 반모더니즘적 입장

ㄱ) 모더니즘에서 지켜져온 장르구분의 철폐 - 설치

ㄴ) 각 영역에 고유한 매체라는 한계를 넘어 여지껏 사용되어 오지 않은 매체들의 사용

(사진, 비디오 등)을 포함한 어떠한 매체들도 사용

- ㄷ) 작품의 의미가 작품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품과 외적인 것과의 관계에 의해 도출: 작품과 작품이 설치된 환경과의 관계, 작품 속의 이미지들이 통용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관계.
 - 의미의 비순수성 : 가장 불순한 기호인 낙서의 사용 낙서를 통해 꾸며지지 않은 원초적인 표현적 에너지를 분출, 작품의 의미의 창조자로서 저자의 죽음.
- ㄹ) 독창성의 부정- 차용 : 다른 곳에서 차용한 이미지들을 적절히 각색하여 그것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박탈하고, 새로운 의미를 제공.

패션에 있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¹⁾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미술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예술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패션이 단지 우리들의 삶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나 소비자들의 자기표현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20세기의 패션의 변화를 위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관계로 정리하고자 한다. 설명의 편의상 모더니즘 패션과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을 아래의 몇 개의 항목으로 대비해 볼 수 있다.

1. 계급의 차별화에서 취미의 차별화로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이르는 시기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신흥부르주아와 계급상승을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때의 의복은 상류층이나 귀족층이 그들만의 신분의 특수성에 대한 과시의 욕구를 위해 그리고 그들과 동일시되고자 하는 계급층들의 모방심리에서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20세기 후반 고도 소비사회에서의 패션은 더 이상 계급의 차별화가 아니라, 개인의 취미를 표출하는 삶의 형식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패션을 통해 개인들이 멋진, 화려한, 자유분방한, 유능한, 고전적인, 세련된, 여성스러운, 로맨틱한, 우아한, 튀는 등의 다양한 스타일들로 자신의 미적인 입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20세기 후반 이후에서 패션은 개인의 취향의 차별화에 다른 욕망의 수단으로 되어가고 있다.

2. 이성적 패션에서 감성적 혹은 다원주의 패션으로

이성적 패션이란 실용적 의복으로 의복재료의 양을 최소로 사용하면서 최대의 실용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의복의 스타일이다. 이것은 모더니즘시대의 특징인 합리주의, 기계주의, 기능주의 등을 발판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례로는 획일적인 1930년대의 코트와 스커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이성불신의 시대, 감성적 경향에 대한 주목, 사회의 다변화 및 다원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20세기 후반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있어서 패션은 취미의 차별화에 부응하는 감성적 경향이 두드러지고 다양한 패션의 미적 가치를 존중하는 다원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다.

1) 이하의 패션의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내용은 『服飾』 37호, 38호(1998.3월, 5월)에 게재된 서울대학교 김민자 교수의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 (II)를 참조로 했음.

3. 패션의 자율성에서 패션의 민주화로

20세기초 모더니즘 패션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으로 패션의 자율성을 들 수 있다. 패션의 자율성이란 '패션을 위한 패션'을 말하고, 정치적 권력이나 재력이 더 이상 새로운 패션의 창조를 조정하지 못함을 말하며, 패션이 디자이너의 예술적 표현의 장으로 인식되어졌음을 말한다. Paul Poiret, Chanel, Schiaparelli, Vionnet, Dior 등의 패션의 황제가 탄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기계 기술생산의 확대에 의해 패션에서도 대량생산이 가능하여졌고, 기성복의 탄생과 더불어 패션의 민주화가 성립되게 되었다.

한편 모더니즘 패션에서 강조하는 디자이너의 예술적 창작이라는 것은 디자이너 개인의 독창성이 강조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를 근거로 1947년 Dior가 뉴룩을 발표하면서 프랑스의 오뜨 꾸뛰르의 독창성이 위력을 떨치게 된다. 그 후 Givency, Balman, Balenciaga, Chanel, Courage 등의 전성시대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1960년대 대중문화의 확산과 가속에 힘입어 패션이 대중행동의 양상으로 인식되고 인간생활영역 전면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되기에 이르른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초에는 비교적 값이 싼 패션을 공장생산하기 시작함으로써 고급 기성복인 프레타 포르테체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유명 디자이너의 브랜드가 거리의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패션 스타일로 되고, 패션의식은 모든 사람에게 파급되어 개개인의 취향이 중시되는 패션에서의 민주화를 성취하게 되었다.

4. 탈중심화 및 다원주의로의 변화

모더니즘적 사고가 서구중심의 예술적 경향이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에 있어서는 여지껏 주변부로 인식되어졌던 것들이 갖는 독자적인 가치에 대한 존중을 들 수 있다. 그 예로 타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관점에서 오리엔탈 록, 민속풍, 에콜로지풍, 복고적인 것의 유행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포스트모더니즘 패션에서는 패션에서의 새로움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과 문학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혼성모방이나 브리콜라주(모더니즘의 독창성에 대한 부정), 키치적인 것의 추구(고급예술과 대중문화간의 경계 해체), 질충주의 등과 같은 반형식주의적 입장 등도 사용하고 있다.